제15강 메를로-뽕띠: 불투명성의 살 시간론 I

(1교시)

1. 메를로-뽕띠의 불투명성의 현상학

메를로-뽕띠가 싸르뜨르와 함께 현상학적인 사유로써 전후 프랑스 사회의 지성계 선두에 서서 사상적인 활동을 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메를로-뽕띠와 싸르뜨르가 다같이 프랑스 현상학의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의 입장은 대립적이라 할 정도로 사뭇 다릅니다. 싸르뜨르는 극단적인 데까르뜨주의자라고 할 만큼 철저한 이분법을 견지합니다. 그는 의식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일체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초월하는 데서 성립하는 대자 존재가 있고, 이러한 의식에게 전혀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즉 전혀 제대로 된 의식의 내용으로 포착되지 못하는 그 자체적인 물질 존재인 즉자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메를로-뽕띠는 이러한 싸르뜨르의 극단적인 이분법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고, 특히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이러한 싸르뜨르의 입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운동의 동료인 싸르뜨르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대신 데까르뜨적인 전통에 젖어 있는 당시의 사상적인 흐름을 공격합니다.

아래 이야기는 메를로-뽕띠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150쪽에 달하는 제1부 「몸」을 마감하면서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를로-뽕띠의 근본 입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다소 길지만 그대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데까르뜨적인 전통에 의해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데 익숙해 있다. 반성적인 태도는 몸을 내부 없는 부분들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정신을 거리 없이 자기 자신에 완전히 현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반성적인 태도는 몸과 정신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을 한꺼번에 순수하게 만든다. 서로 상관하는 이 정의들은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명료성을 확립한다. 즉 숨겨진 부분이 없는 대상의 투명성과 제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주체의 투명성을 확립한다. 대상은 전적으로 대상이고, 의식은 전적으로 의식이다. 두 방향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그 낱말의 두 가지 의미만이 존재한다. 즉 인간은 사물로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의식으로서 존재한다. 그 반대로 몸 자신에 대한 경험은 다의적인(ambigu) 실존의 양식을 드러낸다. 만약 몸 자신을 제3인칭적인 과정의 묶음—“봄”, “운동성”, “성”—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기능들”이 인과관계에 의해 서로에게 연결되거나 외부 세계에 연결되어 있을 수 없다. 이 “기능들”은 특유한 하나의 드라마 속에서 완전히 혼동되게 파악되고 서로 함축적이다. 따라서 몸은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몸에 대해 갖는 의식은 사유가 아니다. 즉 몸에 대한 명료한 관념을 형성하기 위해 몸을 해체하여 재구성할 수는 없다. 몸의 통일성은 항상 함축적이고 어렴풋하다. 몸은 언제나 자신과 다른 것이고, 자유이자 성이고, 심지어 문화에 의해 변형될 때조차 자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결코 닫혀 있지 않을뿐더러 결코 [자기 자신에 의해] 초월되지도 않는다. 타인의 몸이 문제가 되건 나 자신의 몸이 문제가 되건 간에, 내가 인간 몸을 인

www.artnstudy.com

식하려 할 때 그 몸을 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즉 그 인간 몸을 관통하는 드라마를 내 쪽으로 받아들여 나를 그 드라마에 넣어 용해하는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따라서 적어도 내가 획득된 부분을 갖는 정도에 따라 나는 내 몸이다. 거꾸로 내 몸은 자연적인 주체이고, 나의 존재 전반에 대해 임시로 그려진 스케치다. 그래서 몸 자신에 대한 경험은 대상을 주체에서 분리시키고 주체를 대상에서 분리시키는 반성적인 운동과 대립된다. 반성적인 운동은 몸에 대한 사유 또는 관념 속에서의 몸을 제공할 뿐, 몸에 대한 경험(체험)이나 현실적인 몸을 제공하지 않는다. 데까르뜨는 이를 잘 알았다. 그는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몸 생활을 영위함에 의해 이해되는 몸과 지성에 의해 이해되는 몸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데까르뜨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몸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몸에 대해 갖게 되는 이 특이한 얇은 관념에 의한 인식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인간 배후에 우리가 처한 사실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작자인 신이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초월적인 보증자에 힘입어, 데까르뜨는 마음 편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비합리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즉 이성을 감당할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가 사물들의 근저에서 이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몫으로 남은 것은 세계 속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어떻게 순수한 영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절대 정신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몸 자신의 재발견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잘 보도록 하자.(230~232)

메를로-뽕띠의 철학은 몸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중심주의 특히 지성주의적인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려 합니다. 그 결과 후기에 이르러 조성한 살 개념에 입각한 봄과 보이는 것 혹은 더 넓게 보아 감각하는 자와 감각되는 것 간의 존재론적인 상호 교차 및 교직은 현대 프랑스 철학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감됩니다. 이러한 메를로-뽕띠의 철학은 불투명성의 현상학으로 정위될 수 있습니다.

우선 메를로-뽕띠는 데까르뜨적인 전통에 따른 반성적인 태도에 입각한 철학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잘못 파악하는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위 인용문에서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는 삶을 명증성 내지는 투명성으로 재단해 낸다는 것입니다. 반성적인 태도는 순수한 주체와 순수한 대상, 즉 그 속에 알 수 없는 뭔가가 전혀 없는 투명한 두 항을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정작 '나'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 주어지면서 바로 이 나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주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순수 주체가 아닌 것은 모두 다 대상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도무지 투명한 순수 주체라고 이야기될 수 없는 내 몸은 대상 영역에 속한 것이 되고 맙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요?

메를로-뽕띠는 우리 몸이 반성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투명한 사유의 대상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 몸에 대한 의식이 결코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몸에 대한 의식이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순전히 몸에 관한 의식인가를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몸에 관한 의식 자체가 혼동되기 때문에 늘 통일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저 함축적이고 어렴풋하다는 것이지요.

www.artnstudy.com

몸을 의식하려 하면 몸이 그 자신인 것과 항상 다른 무엇인 양 의식되고, 문화에 의해 변형되는가 하면 자연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신 속에 닫혀 있지 않으려 하면서도 자신을 결코 초월하지 않는다는 철저히 다의적이고 애매한 존재가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몸 혹은 몸을 통한 삶은 처음부터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전반적으로 그 몸을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앎은 당연히 반성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명석 판명한 앎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메를로-뽕띠는 '획득된 혹은 침전된 존재로서의 몸 자신'을 제시하고, 바로 그런 한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몸임을 역설합니다. 이럴 경우 몸으로서의 주체인 나는 결코 나의 의식에 전반적으로 현전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남아도는 두툼한 두께와 겹겹이 쌓인 주름을 지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자 존재로서의 순수한 주체라는 것은 기실 반성적인 사유 작용에 의한 구성물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존재를 지닌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주체와 대상 간의 뚜렷한 구분이란 것도 결코 그 자체로 존재론적인 무게를 지닐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구성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이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실마리를 데까르뜨도 알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실의 배후에 이러한 사실을 엮어내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원천은 오로지 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뿐, 인간 삶에서부터 이성이 융기해 올라온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메를로-뽕띠는 어디에선가 "참다운 이성은 비이성적인 것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조차 인간 삶을 벗어나서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메를로-뽕띠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교시)

싸르뜨르 존재론의 공적은 훗설이 배제해버린 존재의 불투명함을 되살리되 하이데거와는 달리 사물의 근본원리로 끌어들여 지상으로 끌어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불투명함과 직접 대결하지 않으려는, 그렇게 대결하다가는 주체의 본성인 자유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강박에 의해 무로서의 절대적인 부정과 초월의 주체를 내세워 다시 데까르뜨식의 허공의 주체를 부활시켰다는 데서 난맥상을 드러냅니다.

주체마저 불투명할 수는 없는가? 불투명한 주체로서 불투명한 사물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갈 수는 없는가? 그럼으로써 오히려 불투명함의 농도를 낮추고 그렇게 낮추어진 농도의 불투명함을 삶의 근본 형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는 없는가? 아니 아예 불투명함과 명증성 내지는 투명함의 경계를 지우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열리는 파동의 세계를 만끽할 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메를로-뽕띠의 몸 현상학이 설립됩니다.

분명 내 속에서 세계가 열리건만 내 자신 역시 세계 속에서 열리는 것이기에 내 속에서 열리는 세계 역시 세계 속에서 열리는 세계라는 것. 따라서 내 속에서 타자가 열리지만 나 역시 타자 속에서 열리는 것이기에 나의 세계는 나의 세계로 존립하고, 타자의 세계는 타자

www.artnstudy.com

자신의 세계로서 충분히 존립하지만, 결국 나와 타자는 공동의 세계에서 존립한다는 것. 이러한 어쩌면 상식적인 존재론을 철학적으로 떠받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세계 속에서 세계와 이미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형태의 의미를 주고받는 살아 있는 몸을 삶의 주체로 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메를로-뽕띠의 입장입니다.

서로 뒤섞여 있어 감추어짐으로써 진정으로 드러나는 나와 세계, 그리고 둘의 관계. 이제 명증성 내지는 투명성에의 열망은 메를로-뽕띠에게서 거세됩니다. 아울러 완전한 불투명성 역시 제거됩니다. 싸르뜨르에게서 보였던 것처럼 명증성 내지는 투명성과 완전한 불투명성은 일종의 일란성 쌍생아이기 때문입니다.

메를로-뽕띠가 몸 현상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마르셀에게 기대는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체화, 참여로서의 지각, 상황에 처한 존재, 실존의 지표로서의 몸, 작용성으로서의 감각, 몸 지각의 신비, "나는 내 몸이다."라는 몸 자아 내지는 몸 주체에 대한 언명은 마르셀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몸의 불투명성에 대한 메를로-뽕띠의 강조는 주위에 어둠을 거느리고 있는 밝은 원으로서의 의식을 중심에 놓는 데서 이제 나의 몸인 어둠을 중심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마르셀의 일종의 비의적인 '나의 몸'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셀로부터 이어받은 몸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론 거비취로부터 소개받아 천착한 게쉬탈트 이론의 원리, 베르그송으로부터 이어받은 습관 이론, 훗설로부터 이어받은 지향성 개념, 하이데거로부터 받아 변형한 '세계에의-존재' 등의 당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굴지의 개념들과 혼연히 결합되면서 메를로-뽕띠 특유의 몸 현상학으로 전개됩니다.

메를로-뽕띠의 몸 현상학이 특별히 비판해 마지않는 지성주의적인 반성 철학은 당연히 반성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코기토적 명증성을 참된 인식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메를로-뽕띠가 내세우는 세계 내지는 상황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참여의 인식론은 인식 주체는 본래 체화된 존재로서 이미 선인칭적인(prépersonnel) 익명의 주체로서 그 자체 불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불투명한 주체에서 만약 투명한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식은 뭔가 추상적으로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유하지 않기 위해 사유한다는 사유의 자기공격성을 반성함으로써 다시 지향하게 되는 메를로-뽕띠가 권유하는 초사유는 그 자체 이미 불투명한 세계 속으로 순조롭게 잠입하기 위한 몸이 하는 사유를 추종하는 철학적 사유입니다.

이제 메를로-뽕띠에서는 사유마저도 본성상 불투명함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불투명한 사유, 이는 명석판명함 즉 명증성 내지는 의식의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데까르뜨적인 철학적 사유를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써 근대의 모더니즘적 사유 체계의 기획을 뿌리에서부터 뒤엎습니다. 결국 메를로-뽕띠는 명증함을 추구하는 지성적 의식으로써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감각적 파동의 존재론 즉 살 존재론으로 이행합니다. 살은 존재의 원소이자 원형으로서 주체와 대상의 무한정한 직접적 환위와 교환을 가능케 하는, 그 자체 감각하는 자와 감각되는 것으로 아직 분화되지 않은 감각 덩어리로 정위됩니다.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덩어리인 양자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감각 덩어리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살과 등치되는 감각 덩어리는 무한정한 파동의 덩어리이고, 이 무한정한 파

www.artnstudy.com

동의 덩어리는 그 자체 점액성이 강한 두께로 응집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훗설의 현상학은 의식에 밝게 드러나는 지대를 바탕으로 어둡게 숨겨져 있는 지대의 음험하고 엄습한 지배력을 무력화하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의식의 지향성은 존재의 근원적인 의식 의존성을 함축함으로써 종래에 영혼 운운하던 의식의 어두운 실체성을 파기함과 더불어 존재의 어두운 여분을 영도(零度)로 만들었습니다. 훗설의 현상학은 의식과 존재의 완전한 맞물림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맞물림이 이성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목적론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전포괄적인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훗설의 현상학에 비추어 보면, 불투명함을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 현상학적일 수 없습니다. 훗설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고서 자기에서 헌정한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데도 제자와의 의절을 불사할 정도로 분노한 것은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러한 현상학의 근본정신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상학의 운동은 오히려 불투명성을 끌어들임으로써 탄력을 받아 걸출한 철학자들을 배출해 냅니다. 과연 불투명성의 현상학은 가능한가요?

불투명성은 본성상 의식이 책임지고 발언할 수 없는 지대 즉 의식이 좌초하는 지대를 노현합니다. 그 곳은 제아무리 깊게 반성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아무리 탁월한 직관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의식으로써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 곳에서 좌초하는 의식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각성된 모습의 스스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어두운 출처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화된 의식'은 각성된 의식의 관점에서 본 용어이지만, 그래서 데리다가 이성의 지배력을 깨기 위해 이성의 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식의 용어이지만, 그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체화된 의식은 곧 몸입니다. 각성된 의식이 체화된 의식에서 생성 발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몸은 각성된 의식 쪽에서 보아 자신의 어두운 출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성의 현상학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의식 현상학이 아니라 몸 현상학이어야 합니다. 불투명한 지대는 늘 그리고 이미 체화된 의식 즉 몸을 에워싸고서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리고 이미'라는 시간적 양상이 바로 불투명성의 시간 차원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늘 그리고 이미 규정하는 '영원한 과거'가 바로 불투명성의 시간 차원입니다. 생생하게 살아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현재를 바탕으로 한 각성된 의식으로써는 도대체 불투명한 지대에 접근할 수 없는 까닭은 이렇듯 시간 차원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투명성의 현상학이 가능하다면 그곳에서는 사유하지 않기 위해 사유하며 의식하지 않기 위해 의식하고 반성하지 않기 위해 반성합니다. '늘 그리고 이미'의 영원한 과거라는 시간의 차원을 견디지 못하는 투명성의 현상학에서는 반성하기 위하여 반성하고 의식하기 위하여 의식하고 사유하기 위해 사유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불투명성의 현상학은 그러한 의식의 습성을 겨냥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점액성이 높은 감각 덩어리에 온 몸을 드리우고자 합니다. 몸은 감각적 파동의 응집체이자 감각적 파동을 '늘 그리고 이미' 미세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표출합니다. 여기에서 몸의 근본적인 불투명성이 성립

www.artnstudy.com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몸의 갖가지 파동이 곧 존재의 갖가지 파동과 '늘 그리고 이미' 조응한다는 몸의 지향성을 도입하게 되면, 불투명성의 현상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늘 그리고 이미' 불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몸의 파동은 존재의 파동에 포섭되지만 존재의 파동은 몸의 파동에 대해 늘 잉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그리고 이미' 확산되는 것이 파동의 본성이기에 몸에 대한 존재의 잉여가 잉여 자체인 것은 결코 아니기에 또 다시 불투명성의 현상학은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www.artnstudy.com